

취미를 붙잡는 힘은 의외로 작은 단서에서 나오곤 한다. 난이도에 맞는 자료를 한두 개 제대로 찾았을 때,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보인다. 반대로, 조각난 정보 사이를 헤매면 흥미가 사그라든다. 그래서 이 글은 단순한 링크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익게 도와주는 사이트 주소모음이다. 분야를 가르듯 나누되, 각각의 사이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은지까지 짚는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 새벽에 틈틈이 배우는 학습자, 비용을 아껴야 하는 학생에게도 무리 없는 동선을 설계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링크모음 느낌으로 읽어도 좋다.

취미 입문에 유용한 베이스캠프

처음 발을 들일 때는 넓은 화면에서 여러 가능성을 훑어보는 편이 좋다. 검색 엔진만으론 부족하다 싶을 때,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모아주는 플랫폼이 쓸 만하다. Pinterest(<https://www.pinterest.com>)는 키워드 몇 개로 취향 맵을 그려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채화 초보자라면 "watercolor beginner palette", "loose florals"를 저장해보자. 저장한 보드를 20개 정도 누적하면, 색감과 구도, 선호하는 작가 스타일이 또렷해진다. 그런 다음, 실습 가능한 튜토리얼로 내려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Reddit(<https://www.reddit.com>)은 영어가 낯설다면 장벽이겠지만, 큰 취미 카테고리에서 실전 팁을 얻기 좋다. 예를 들어 r/photography, r/woodworking, r/lego 같은 커뮤니티는 장비 추천이나 문제 해결 경험담이 쏟아진다. 글 하나에 댓글 100개 넘게 달리는 경우도 많아, 비슷한 상황의 조언을 쉽게 찾는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소비하면 피로해진다. 스레드 북마크를 만들어 3개 내외만 집중해서 따라가자.

한국어로 정제된 자료를 원하면 브런치(<https://brunch.co.kr>)나 네이버 블로그(<https://section.blog.naver.com>)를 병행한다. 같은 주제를 두 언어권에서 각각 찾아보면, 도구 선택과 작업 순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홈베이킹을 시작할 때, 영어 레시피는 온도 기준을 섭씨로 바꾸는 계산이 필요하지만, 한국 블로그는 오븐 특성에 맞춘 실전 팁이 더 많다. 이 둘을 섞으면 실패 확률이 낮아진다.

무료웹툰과 합법적인 콘텐츠 플랫폼

무료웹툰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적 문제를 피하는 일이다. 광고 깔린 복제 사이트는 결국 시간을 빼앗고, 악성 스크립트 위험까지 떠안는다. 작품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합법 플랫폼을 기준으로 링크모음을 구성하자.

네이버 웹툰(<https://comic.naver.com>)은 회차 무료 공개가 안정적이고, 완결작도 이벤트로 순환 공개한다. 관심 작품을 관심작 목록에 넣으면, 무료화 기간이 시작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지(<https://page.kakao.com>)는 기다리면 무료 구조가 명확하다. 규칙이 작품마다 달라 보이지만, 대부분 24시간 또는 72시간 주기로 1회차씩 감상권이 돌아온다. 시즌성 프로모션이 잦아 주말에 몰아서 보고 싶을 때 유용하다. 레진코믹스(<https://www.lezhin.com/ko>)는 상시 무료가 많지는 않지만, 기획전 형태로 무료 회차를 열어주는 기간이 있다. 이벤트 공지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건질 만한 작품이 꽤 나온다.

독립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보고 싶다면 텀블벅(<https://tumblrbug.com>)에서 웹툰 관련 프로젝트를 구독해두자. 미리보기나 체험판 형식의 공개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신작 탐색에 도움이 된다. 또 커뮤니티 프렌들리한 느낌을 선호한다면 픽시브(<https://www.pixiv.net>)도 참고할 만하다. 완결형 웹툰과는 결이 다르지만, 러프 스케치와 단편 포맷에서 작가의 뉘앙스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무료웹툰을 합법적으로 즐기려면, 쿠폰과 포인트의 흐름을 최소한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전에는 쿠폰 굶는 재미로 여러 플랫폼을 오가다 소진일을 놓치기 일쑤였다. 지금은 관심 플랫폼을 두세 곳으로 줄이고, 알림과 캘린더를 함께 쓰는 편이 낫다. 일정 앱에 "기다무 회차 갱신"처럼 간단히 적어두면 누수 없이 챙긴다.

요리, 홈카페, 레시피 정리의 요령

레시피는 양질의 영상과 정확한 계량이 핵심이다. 유튜브에서 한 채널에 올리기보다, 주재료별로 신뢰 채널을 나눠두면 실패를 줄인다. 예를 들어 베이킹은 King Arthur Baking의 공식 사이트(<https://www.kingarthurbaking.com/recipes>)가 안정적이다. 수분을 표와 대체 재료 안내가 잘 되어 있어, 국내 밀가루를 쓸 때도 감을 잡기 쉽다. 채소 중심 요리는 Serious Eats(<https://www.serioouseats.com>)에서 조리 과학을 확인하고, 한국식 양념은 만개의레시피(<https://www.10000recipe.com>)에서 베스트 레시피의 평균값을 취한다. 즉, 같은 메뉴의 상위 10개 레시피를 확인한 뒤, 양념 비율의 중간값으로 출발하면 과하거나 멍멍한 실수를 덜 한다.

홈카페를 한다면 스페셜티 커피의 원두 정보는 카페쇼 출전 업체의 쇼핑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트랜스퍼러런시 리포트를 공개하는 해외 로스터는 Square Mile Coffee Roasters(<https://shop.squaremilecoffee.com>)처럼 데이터가 상세하다. 국내는 모모스커피(<https://momos.co.kr>) 같은 곳에서 로스팅 노트와 권장 추출 레시피를 함께 제공한다. 장비는 포럼을 참고하되, 장비병에 빠지지 않으려면 커뮤니티의 반복 질문 스레드를 먼저 읽자. 홈바리스타 커뮤니티인 Home-Barista(<https://www.home-barista.com>)는 구매 전 체크리스트 글이 체계적이다.

레시피 관리에는 Notion(<https://www.notion.so>)이 편하다. 템플릿 하나 만들어 이미지, 재료, 그램 단위, 실패 기록, 시간 기록을 한 화면에 두면, 다음 시도 때 정확도가 올라간다. 모바일에서 장보기 체크가 필요하다면 구글 킵(<https://keep.google.com>)과 병행해 동기화한다.

사진, 영상, 그래픽: 배우는 순서와 사이트

사진은 촬영, 후보정, 보관 이 세 단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오래간다. 촬영은 YouTube에서 Fstoppers(<https://www.youtube.com/@fstoppers>)와 SLR Lounge(<https://www.youtube.com/@SLRLounge>)를 기본으로, 한국어 강좌는 유튜브 안프로(채널 검색)로 보완한다. 후보정은 Adobe의 공식 튜토리얼 센터(<https://helpx.adobe.com/kr/support/lightroom.html>, <https://helpx.adobe.com/kr/support/photoshop.html>)가 의외로 탄탄하다. 최신 버전 기준으로 메뉴가 바뀔 때 안내가 빠른 편이다. 보관은 Google Photos(<https://photos.google.com>) 또는 Synology NAS 솔루션(<https://www.synology.com/ko-kr>) 중 하나로 갈라진다. 구독형 클라우드의 단순함과 개인 NAS의 확장성, 어느 쪽을 택하든 초기 세팅에 시간을 쓰면 장기 유지가 수월하다.

영상 편집은 DaVinci Resolve(<https://www.blackmagicdesign.com/kr/products/davinciresolve>) 무료 버전이 충분히 강력하다. 색보정의 기본은 3노드 구조로 시작하면 덜 복잡하다. 커브를 조정하는 기초를 익혔다면, Casey Faris(<https://www.youtube.com/@CaseyFaris>)의 노드 예시를 따라가며 프로젝트를 두세 개 완성해보자. 모션 그래픽이 궁금하다면 Motion Array(<https://motionarray.com>)에서 무료 템플릿 몇 개를 받아 구조를 분해해본다. 템플릿을 맹목적으로 끼워 맞추기보다, 구조를 읽고 자신만의 전환 규칙을 적어두면 퀄리티가 안정화된다.

그래픽 디자인은 Figma(<https://www.figma.com>)와 Canva(<https://www.canva.com>) 조합이 부담 없다. 포스터, 썸네일, SNS 카드뉴스 같은 반복 포맷은 Canva로 빠르게 만들고, UI나 아이콘 셋처럼 컴포넌트 기반 작업은 Figma에서 체계화한다. 영감 수집은 Behance(<https://www.behance.net>)와 Dribbble(<https://dribbble.com>)을 병행하되, 북극성 샘플 3개를 정해, 컬러 팔레트와 타이포 규칙을 추출해두면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메이킹, 3D 모델링, 취미 전자공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Instructables(<https://www.instructables.com>)에서 프로젝트를 고르고, 재료 리스트를 현실화하는 게 첫걸음이다. 홈센터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바꿀 수 있는지 체크하고, 공구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3D 모델링은 Tinkercad(<https://www.tinkercad.com>)가 문턱이 낮다. UI가 간단해서 초보도 30분 안에 첫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 조금 익숙해지면 Fusion 360(<https://www.autodesk.com/products/fusion-360>) 체험판으로 옮겨와 파라메트릭 설계의 개념을 배운다. 출력용 모델을 찾고 싶으면 Thingiverse(<https://www.thingiverse.com>)와 Printables(<https://www.printables.com>)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며 다운로드한다. 창작물 배포 전, CC BY와 CC BY-NC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전자공작은 Adafruit(<https://learn.adafruit.com>)과 SparkFun(<https://learn.sparkfun.com>)의 학습 허브가 친절하다. 회로도 와 예제 코드, 필요한 모듈 링크가 일목요연해, 부품 호환성 문제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든다. 회로 설계는 KiCad(<https://www.kicad.org>)가 무료로 충분히 강력하다. 처음에는 브레드보드로 구성한 뒤, 패턴을 KiCad에서 옮기고, JLCPCB(<https://jlcpcb.com>) 같은 제조사에 5장 단위로 발주해보자. 배송 포함해도 소량 제작 비용이 생각보다 낮다.

코딩과 데이터: 취미로 시작해도 튼튼하게

취미 코딩의 함정은 튜토리얼만 끝없이 보는 것이다. 온라인 실습 환경을 쓰면 시작이 간단하고, 미니 프로젝트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 Replit(<https://replit.com>)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GitHub(<https://github.com>) 저장소로 버전 관리를 붙이기 쉽다. 파이썬 기반 데이터 연습은 Kaggle(<https://www.kaggle.com>) 노트북이 적합하다.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같은 입문 데이터셋은 튜토리얼이 많아, 스스로 만든 베이스라인과 커뮤니티 상위 솔루션을 비교하기 좋다. 문제는 성취감의 속도다. 점수가 잘 안 오르면, 시각화로 방향을 바꿔보자. Observable(<https://observablehq.com>)을 써서 인터랙티브 차트를 만들어 공유하면 피드백 받기 쉬워 동기부여가 유지된다.

웹 개발을 맛보고 싶다면, Netlify(<https://www.netlify.com>)와 Vercel(<https://vercel.com>)을 사용할 수 있다. 깃 푸시 한 번에 배포가 끝나고, 커스텀 도메인 연결도 쉬운 편이다. 정적 사이트 생성기인 Astro(<https://astro.build>)나 Next.js(<https://nextjs.org>)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오픈소스 테마를 커스터마이징해보면 실전 감각이 빨리 붙는다. 처음에는 초기 로딩 속도보다 접근성을 먼저 챙기자. Lighthouse(<https://developer.chrome.com/docs/lighthouse>) 리포트를 기준으로 대체 텍스트와 콘트라스트 비율을 맞추는 버릇을 들이면, 이후 프로젝트에서도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언어 학습, 발음, 회화 파트너 찾기

언어 학습은 단어, 발음, 실전 회화를 따로 관리해야 속도가 붙는다. 단어 학습은 Anki(<https://apps.ankiweb.net>)에 코어 단어장을 넣고, 하루 10분씩 복습한다. 애매하게 외운 단어는 문장 예시를 추가해 문맥과 묶자. 발음은 Forvo(<https://forvo.com>)에서 원어민 발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녹음을 Backtrack 방식으로 비교한다. 30초짜리 쉽고 짧은 문장을 고르고, 심포 위치와 강세를 표시해두면 교정 효과가 크다. 회화 파트너는 italki(<https://www.italki.com>)에서 체험 레슨을 두세 번 들어보며 스타일을 맞춘다. 프리토킹만 요청하지 말고, 사전에 오늘의 주제와 목표 표현 세트를 공유하면, 레슨 후 복습이 쉬워진다.

문법 정리는 영어의 경우 Cambridge Dictionary(<https://dictionary.cambridge.org>), 독일어라면 DW Learn German(<https://learngerman.dw.com>), 일본어는 NHK WORLD-JAPAN의 Easy

Japanese(<https://www3.nhk.or.jp/nhkworld/en/learnjapanese/>)를 추천한다. 무료 자료지만 품질이 균일하다. 회화 대본은 TED-Ed(<https://ed.ted.com>)의 짧은 영상으로 듣고 따라 말하기 루틴을 만들자. 스크립트, 퀴즈, 토론 질문이 함께 제공되어, 20분 루틴으로도 학습 밀도가 높다.

독서, 글쓰기, 노트 정리

독서 기록은 Goodreads(<https://www.goodreads.com>)로 시작해도 되지만, 한국어 도서의 메타데이터가 빈약할 때가 있다. 알라딘(<https://www.aladin.co.kr>) 서재 기능이나 리디북스(<https://ridibooks.com>)의 서평 시스템이 국내서는 더 풍부하다. 인상 깊은 구절은 Readwise(<https://readwise.io>)로 동기화하면, 하루 리마인드 메일이 자동으로 날아와 복습하기 좋다. 하이라이트가 쌓이면 Notion으로 옮겨, 작가별 혹은 주제별 링크모음을 만든다. 같은 주제를 다룬 책 세 권의 핵심 문장을 나란히 놓아 비교하면, 생각의 골이 깊어진다.

글쓰기는 Typora(<https://typora.io>)나 Obsidian(<https://obsidian.md>)로 마크다운 기반 워크플로를 만들자. 초고는 마크다운으로, 편집은 워드프로세서로 옮기는 식으로 분업하면, 레이아웃 고민 없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발행은 미디엄(<https://medium.com>), 링크모음 브런치(<https://brunch.co.kr>), 개인 블로그 중 하나를 골라 반복한다. 글쓰기에서 중요한 건 공개 리듬이다. 매주 한 번이든, 월 2회든, 리듬을 정해놓아야 독자와의 접점이 유지된다.

러닝, 요가, 홈트: 계획과 데이터

운동은 계획과 기록이 일치해야 지속된다. 러닝은 Strava(<https://www.strava.com>)와 Garmin Connect(<https://connect.garmin.com>) 조합이면 충분하다. 목표 페이스와 케이던스를 정하고, 구간 나누기 연습을 하면 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인 훈련이 된다. 요가는 Down Dog(<https://www.downdogapp.com>) 앱으로 세션을 만든 뒤, 유튜브의 Yoga With Adriene(<https://www.youtube.com/@yogawithadriene>)로 보강한다. 관절 안정성은 짧게, 10분 루틴을 하루에 두 번 나눠 하는 방식이 통했다. 홈트는 FitnessBlender(<https://www.fitnessblender.com>)에서 난이도와 시간 필터로 검색하면 원하는 조합이 잘 나온다. 본 운동 전 5분 프리웍 영상을 더하면, 부상 빈도가 확 낮아진다.

보드게임과 TRPG: 규칙, 일러스트, 커뮤니티

보드게임은 BGG, 즉 BoardGameGeek(<https://boardgamegeek.com>)을 모르면 아쉬운 수준이다. 평점만 보지 말고, Complexity Weight와 Recommended Player Count를 꼭 확인하자. 집에서 2인 위주로 즐긴다면, 명성이 높은 협력 게임도 체감 재미가 떨어질 수 있다. 규칙서 번역은 국내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파일이 많지만, 공식 PDF를 우선 확인해 최신 에라타를 반영해야 헛갈리지 않는다. TRPG는 D&D Beyond(<https://www.dndbeyond.com>)에서 룰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Roll20(<https://roll20.net>)으로 온라인 세션을 진행한다. 일러스트 예셋은 CartographyAssets(<https://cartographyassets.com>)에서 지도 타일을 다운로드해 신속히 세팅할 수 있다.

여행 계획: 지도와 예약, 동선 최적화

여행은 구글 맵스(<https://maps.google.com>)에 개인 지도를 만들고, 장소마다 메모를 붙이는 방식이 깔끔하다. 지도에 색상 코드를 부여해, 식당은 노란색, 박물관은 파란색, 카페는 갈색처럼 구분하면 현장에서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 티켓 예약은 Klook(<https://www.klook.com>)과 GetYourGuide(<https://www.getyourguide.com>)를 비교해 가격과 취소 규정을 본다. 같은 투어라도 집결 장소가 미묘하게 달라, 이동 동선이 꼬이기 쉽다. 숙소는 Booking.com(<https://www.booking.com>), Airbnb(<https://www.airbnb.com>) 외에도 현지 체인 호텔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하면, 조식 포함 조건이 유리할 때가 있다.

식당 탐색은 구글 평점만 믿기보다, 현지어 리뷰가 많은 플랫폼을 참고하자. 일본은 타베로그(<https://tabelog.com>), 대만은 iPeen(<https://www.ipeen.com.tw>)이 지역성 높은 정보를 준다. 예약은

OpenTable(<https://www.opentable.com>)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병행하되, 작은 가게는 전화 예약이 더 확실하다. 언어가 부담되면 이메일 폼을 쓰거나, 호텔 컨시어지에 예약 대행을 요청하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된다.

실패를 줄이는 사이트 활용 루틴

처음 시작한 취미가 세 달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바쁜 일정, 장비 문제, 초기 난이도 같은 요소가 겹치면 흐지부지된다. 그래서 링크모음을 모았다면, 활용 루틴까지 정리해두는 게 좋다.

- 목적 정의: 이번 달에 끝낼 수 있는 작은 결과물을 정한다. 쿠키 한 판, 웹툰 30화 감상, 3km 러닝 완주처럼 측정 가능해야 한다.
- 사이트 세트 고정: 분야마다 2개, 많아도 3개의 핵심 사이트만 고정한다. 나머지는 보조 자료로 즐겨찾기 폴더에 넣어둔다.
- 시간블록: 주 3회, 회당 40분 같은 고정 블록을 캘린더에 넣고, 알림을 10분 전에 울리게 한다.
- 기록 습관: 결과물과 과정을 사진 2장, 메모 3줄로 남긴다. 시각 기록은 동기부여가 강력하다.
- 주간 점검: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계획을 5분 점검한다. 일정 변경은 이때만 한다.

이 루틴은 대부분의 취미에 통한다. 평소 성격과 리듬에 맞게 숫자만 조정하면 된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즐기기 위한 체크리스트

링크를 많이 저장하다 보면, 신뢰성 검증을 빼먹기 쉽다. 보안과 저작권 이슈를 사전에 걸러내면,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

- 도메인 확인: 의심스러운 서브도메인, 철자 바꾸기(typosquatting) 도메인은 피한다. 공식 SNS나 개발사 페이지에서 교차 확인한다.
- HTTPS 필수: 로그인이나 결제가 필요한 사이트는 주소창 자물쇠와 인증서를 확인한다.
- 광고 차단과 악성 스크립트: 과도한 팝업이 뜨는 사이트는 닫는다. 합법적 무료 공개를 표방해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거른다.
- 라이선스 준수: 이미지, 3D 모델, 음악은 라이선스를 명확히 확인한다. 상업적 이용 금지인지,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지 기록한다.
- 지역 규정: 전자공작, 드론 촬영 같은 활동은 지역별 안전 규정을 사전에 확인한다. 공원과 공항 인근은 특히 민감하다.

체크리스트를 의식적으로 몇 번만 돌려도, 실수할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보조 도구

좋은 사이트 주소모음이 있어도, 결국 실행을 유지하는 건 보조 도구다. 북마크 정리는 Raindrop.io(<https://raindrop.io>)가 시각적으로 깔끔하다. 폴더 대신 태그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하나의 링크가 여러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동화는 Zapier(<https://zapier.com>)나 IFTTT(<https://ifttt.com>)로,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나중에 볼 동영상'을 저장하면 Notion 데이터베이스에도 자동으로 항목이 생기게 만든다. 시간이 조금 들지만, 일주일에 중복 검색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타이머는 Forest(<https://www.forestapp.cc>) 같은 포모도로 앱이 가볍다. 25분 집중 후 5분 휴식, 이를 두세 사이클 돌리고 15분 긴 휴식을 하는 리듬이 오래 간다. 새벽형이라면 스마트 전구 앱과 연동해 25분 후 은은한 조명을 켜지게 하면, 눈의 피로를 덜 수 있다.

취미 커뮤니티에서 오래 버티는 법

커뮤니티는 양날의 검이다. 동기부여를 주지만, 비교와 소모전이 시작되면 금세 지친다. 그럼에도 커뮤니티를 끊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게시판에 작품을 올릴 때는, 완성도에 대한 평가보다 배운 점 3가지를 명시하자. “이번에는 셔터 속도와 ISO를 이 값으로 고정해 노이즈를 줄였다”처럼 구체적으로 써두면, 피드백이 생산적으로 돌아온다. 질문을 던질 때는 시도한 것과 실패한 것을 먼저 정리한다. “이 조합은 시도했지만 이런 에러가 났다”는 수준의 정보가 있어야, 답변하는 사람도 시간을 보태고 싶어진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나 상업 광고가 과열된 공간은 피하는 편이 좋다. 커뮤니티 운영진의 공지와 토론 문화가 건강한지 먼저 본다. 예를 들어, 디시인사이드 계열은 속도가 빠르지만 내부 밈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반면 네이버 카페나 클럽하우스형 커뮤니티는 규칙이 엄격한 대신 정보의 품질이 비교적 일정하다. 본인의 성격과 맞는 곳을 고른 뒤, 시간 제한을 뒤 참여하면 소모감을 줄일 수 있다.

링크모음을 내 취향에 맞게 다듬는 방법

남의 사이트 주소모음은 출발점일 뿐이다. 몇 주 써보다 보면, 내 손에 맞는 도구만 남는다. 다음 기준으로 재정비해보자. 첫째, 로그인 필수인지, 비로그인으로도 핵심 기능을 쓸 수 있는지. 둘째, 모바일에서 쾌적한지, 데스크톱이 필수인지. 셋째, 백업과 내보내기가 쉬운지. 예를 들어 사진 원본을 Google Photos에서 내려받기 쉬운가, Notion 데이터베이스를 CSV로 내보낼 수 있는가. 넷째, 가격 정책이 예측 가능한지. 무료 티어로 충분한지, 유료로 넘어가면 월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다섯째, 커뮤니티와 문서화 수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정리해도, 취미 인프라가 깔끔하게 유지된다. 낡은 링크를 지우고, 자주 가는 곳을 북마크 바 최상단으로 올리면, 클릭 한두 번이 줄고, 그만큼 시작 시간이 빨라진다.

마무리, 실행으로 이어지는 작은 힌트

링크를 잔뜩 모으는 건 쉽다. 어려운 건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일이다. 입문이라면, 각 분야에서 하나씩만 골라 바로 열어보자. 무료웹툰은 네이버 웹툰의 관심작 알림을 설정하고, 요리는 Serious Eats의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어본다. 사진은 Lightroom 튜토리얼의 기본 보정 5단계를 따라 하고, 코딩은 Replit에서 “Hello, world!”가 아닌 간단한 계산기까지 만든다. 언어는 Forvo에서 문장 하나를 녹음해 비교하고, 운동은 FitnessBlender의 10분짜리 워밍업을 돌린다. 이 작은 실행이 다음 클릭을 부른다.

취미는 성취보다 과정이 먼저다. 과정을 돕는 길잡이가 좋은 링크다. 위의 링크모음을 내 방식으로 다듬어,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다시 꺼내 쓰길 바란다. 좋은 취미는 결국 좋은 날들을 만든다.